

近世期 佛敎寺刹의 建築計劃과 構成要素 研究¹⁾

-首都圈 願堂寺刹을 중심으로-

金奉烈

(울산대학교 부교수,정회원)

1. 序論¹⁾

혹독한 탄압의 시기였던 조선시대에도 불교는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그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해왔다. 특히 조선말기인 19세기에는 서울 경기 일원을 중심으로 많은 사찰들이 왕실이나 세력가들과의 유대를 통해 중건 또는 창건되었다. 이 사찰들은 전통 건축기술이 종말을 고하던 끝 무렵에 세워졌고, 협소한 터에 급조된 건물들로 인해 그 질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전의 지방사찰들과는 또다른 건축적 내용과 형식을 가지고서, 19세기라는 한국사의 격동기 속에서 활발한 營造활동의 장을 열었다. 이들 사찰은 5세기에 시작된 한국 불교건축사의 거대한 흐름을 현대와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점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19세기 서울 경기 일원에 유행같이 세워진 원당사찰들을 조사 분석하고 있다.²⁾ 이들 사찰들의 독특한 건축계획과 大房이라는 고유한 건물형식에 주목하여 유형적 성격을 규명하고, 건축 구성요소들의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그 형식적 기술적 연원을 밝히려 한다. 그러므로써 19세기

건축의 시대적 성격을 규명함은 물론 한국 불교 건축사의 취약부분을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2. 近世 佛敎建築의 背景的 考察

2-1. 19세기 佛敎界의 狀況

19세기는 개항과 동학혁명, 그리고 갑오경장 등 한국사 전반에 걸친 격변의 시기였을 뿐 아니라, 15세기 이후 축소 통폐합의 피해를 당해왔던 불교계에도 예외없는 대변화의 시기였다. 불교에 대한 국가적 탄압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완화되었고, 동시에 일본 불교가 상륙하여 포교가 시작된 식민지적 상황으로 돌입하였다.³⁾ 또한 몇몇 사찰

2) 분석을 위한 현장조사는 1994-95년에 걸쳐 실시되었다. 조사대상 사찰은 남양주 興國寺, 파주 普光寺, 서울 은평구 守國寺, 서울 성북구 慶國寺와 興天寺, 서울 도봉구 天竺寺와 華溪寺, 서울 서대문구 奉元寺, 충남 예산 華嚴寺였다. 원형과는 너무 많이 바뀌어 본조사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서울 강남구 奉恩寺, 동대문구 開雲寺, 남양주 奉永寺와 佛岩寺, 의왕 清溪寺, 의정부 望月寺도 비교 참고자료로 조사되었다.

1) 이 논문은 199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3) 불교사학회, 近代韓國佛敎史論, 민족사, 1988, 250쪽. 일본 불교가 한반도에 수입된 최초의 해는

사찰	주 불 전				대 방 체			주불전:대방체 면적비
	건립연대	칸수	면적(m ²)	봉 양 불	건립연대	칸수	면적(m ²)	
흥국사	1821	3 × 3	63	보현-석가-문수	1821	43칸	293.6	1 : 4.7
화계사	1870	3 × 3	53.7	아미타삼존 석가삼존	1866	30칸	292.8	1 : 5.5
보광사	1898	3 × 3	84	석 가	1913	30칸	290	1 : 3.5
경국사	1980	5 × 3	84	석가, 목각탱	1870	30칸	196	1 : 2.3
화암사	1977	3 × 2	48.6	석 가	19세기초 (1977)	22칸	172.75	1 : 3.6
흥천사	1853	3 × 3	44	아미타	1849 (1865)	48칸	247.4	1 : 5.6
수국사	1900	3 × 2	54	관 음	1900 (1950)	21칸	133.5	1 : 2.5
봉원사	1855	3 × 3	56.5	관음-석가-지장	* 1945년까지 삼천불전(대방) 존재			

() 속의 연대는 상부구조의 최근중건시기를 의미함

표 1. 수도권 원당사찰의 주불전과 대방체 제원 비교

은 나라 전체 근대화 운동의 본거지로 제공되기도 했다.⁴⁾ 그러나 불교사의 근대적 기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일반사의 흐름과 같이 1876년 개항을 근대불교의 기점으로 보는 견해⁵⁾, 승려들의 도성출입금지가 해제된 1895년을 기점으로 보는 견해, 그리고 元興寺를 설립하여 국가관리가 시도된 1899년을 기점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⁶⁾ 그러나 당시 불교계의 전반적인 상황은, 비록 소수의 선구적 승려들이 근대화를 위해 노력했다고는 하지만, 기존 불교의 전통을 고수하며 개별사찰의 부흥을 시도한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더욱이 근대적 의미의 건축활동은 20세기로 유보되었다.

국가적인 유교 통치의 구조 아래서 사찰중흥의 대표적인 수단은 왕실이나 세도가문의 기복을 빌어주며 재정적 후원과 정치적 보호를 얻어내는 일이었다.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이처럼 몇 유력 개인을 위한 기복사찰을 願堂 혹은 願刹이라

- 4) 남도영, 近代佛敎의 敎育活動, 같은 책, 212쪽. 서울 근교의 봉원사는 개화승 이동인이 활동하였고, 화계사는 역시 승려 탁정식과 개화파 김옥균들의 교우장소였다.
- 5) 불교사회문화연구소, 現代韓國佛敎論, 도서출판 여래, 1983, 37쪽.
- 6) 불교사회문화연구원, 韓國佛敎의 現實과 展望, 지양사, 1986, 37쪽.
- 7) 願刹은 사찰 전체가 특정인에 의해 창건되어 그의 기복사찰이 되는 경우, 아니면 기존 사찰이 왕실의 명에 의해 지정되는 경우가 있다. 반면 願堂은 기존 사찰에 새롭게 세워진 기복용의 특정 건물을 지칭한다. 그러나 원찰과 원당은 혼용되어 불리워져서 커다란 구별이 없어졌다.
- 8) 불교사회문화연구소, 現代韓國佛敎論, 39쪽.
- 9) 임혜봉, 불교사 100장면, 가람기획, 1994, 253쪽. 그러나 정조 그 자신이 부친 사도세자의 원찰로 수원 용주사를 창건할 정도였다.
- 10) 조사된 사찰의 기록들에 등장하는 인물들만도 다음과 같다.

奉元寺 : 尙宮淸信女金氏, 皇城內西署皇華坊景雲宮 淳嬪謀氏.

華溪寺 : 雲峴大院君, 大王大妃趙氏, 王大妃洪氏, 慶嬪金氏 外 尙宮15人.

興天寺 : 大院位李氏, 府大夫人閔氏.

1877년이였다. 일본 불교 眞宗 大谷派 本願寺의 승려 奥村圓心이 부산에 포교원을 개설하였다. 일본의 日蓮宗 佐野前勳의 건의에 의해서 1895년 조정이 승려들의 도성출입을 허용할 정도로 한국 내 일본불교의 세력은 막강해졌다.

부른다.7) 비록 원당 설치를 위한 19세기의 노력이 이전과 구별되는 주목할만한 활동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결코 근대적인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근대화에 역행하는 반동적인 것이었다. 이 논문에서 19세기의 불교를 근대불교가 아닌, 근세불교라고 부르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

2-2. 願堂寺刹의 略史

불교를 이단이나 미신으로 치부하여 흑심한 탄압을 가했던 유학세력이 조선조의 실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불교가 그나마 후원을 기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세력은 왕실이었다. 조선왕조는 斥佛을 정치적 명목으로 삼았지만, 왕을 비롯한 왕실의 인물들은 은밀한 護佛의 전통을 이어왔다. 물론 그들은 고도의 정신체계로서 불교를 이해한 것이 아니라, 王子生産과 冥福을 위한 祈禱信仰의 차원에서 불교를 필요로 했을 뿐이다.8) 비록 願堂 설치가 불교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퇴행적인 활동이기는 하지만, 지배 유학세력의 말살 위협 앞에서 생존을 위해 택할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전략이기도 했다.

전국 대부분의 사찰들이 철폐되고 축소되었던 조선 초기에도 수도권의 奉恩寺 興天寺 등이 王室의 陵寢造泡사찰인 원찰들로 창건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원당설치 바람은 왕권이 강화된 18세기 英正祖 때라 볼 수 있다. 지방의 우수한 사찰이었던 仙巖寺 法住寺 通度寺 孤雲寺 釋王寺 등에 원당이 설치되었다. 이들은 사찰 내에 새로이 작은 법당을 설치하고 후손이 귀했던 영조와 정조의 왕자 생산을 축원하여 원당으로 지정받은 경우다. 일단 원당으로 지정을 받으면 왕실에서 내리는 보물들과 하사금이 사찰 중흥의 기반이 될 뿐 아니라, 지방 유력세력의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유력한 명분이 되었다. 따라서 전국

대다수의 사찰들이 앞을 다투어 원당 지정의 청원을 내었고, 1777년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전국에 願堂設置禁止令을 내릴 정도였다.9) 18세기에 원당 설치 붐이 일어난 것은 강력한 계몽군주였던 영조와 정조가 기존 유학세력들을 제어할 수 있었던 정치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것이기도 했다.

19세기 전반부는 완벽한 세도정치 시기였다. 이때에는 원당 설치의 주역이 王室 뿐 아니라 궁내의 尙宮들, 그리고 勢道家까지로 확대된다. 정치적 실권이 왕이 아니라 궁인들과 세도가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19세기 후반에도 원당사찰의 중요한 주역들이 되었다. 18세기에는 주로 지방에 세워졌던 원당들이 19세기에 들어서면 도성 교외 수도권 일대에 집중하게 된다. 그 이전까지 수도권에는 소수의 능침사찰들을 제외하고는 사찰을 창건은 물론 유지도 금지되어 왔다. 따라서 19세기 수도권에 집중된 원당사찰들은 거의 모두 새롭게 조성된 것들이다. 또한 18세기 지방의 원당들은 가람의 기존 배치구조 속에 원당건물을 삽입하는 정도였으나, 19세기 수도권의 원당들은 애초부터 원당의 기능을 위해 사찰 전체가 계획되었다. 따라서 이전과는 다른 원당사찰의 형식을 창출하기에 이르렀다.

3. 首都圈 願堂寺刹의 形式

3-1. 位置와 後援勢力

기록에 나타나는 19세기 수도권 일대 원당사찰들의 분포를 재구성하면 <그림-1>과 같다.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승려들의 도성출입이 금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도성 내에는 사찰이 전혀 존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원찰의 후원자였던 궁내 상궁들과 궁밖 왕족 세도자들이10) 직접 왕래할 수 있

7) 願刹은 사찰 전체가 특정인에 의해 창건되어 그의 기복사찰이 되는 경우, 아니면 기존 사찰이 왕실의 명에 의해 지정되는 경우가 있다. 반면 願堂은 기존 사찰에 새롭게 세워진 기복용의 특정 건물을 지칭한다. 그러나 원찰과 원당은 혼용되어 불리워져서 커다란 구별이 없어졌다.

8) 불교사회문화연구소, 現代韓國佛敎論, 39쪽.

9) 임혜봉, 불교사 100장면, 가람기획, 1994, 253쪽. 그러나 정조 그 자신이 부친 사도세자의 원찰로 수원 용주사를 창건할 정도였다.

10) 조사된 사찰의 기록들에 등장하는 인물들만도 다음과 같다.

奉元寺 : 尙宮淸信女金氏, 皇城內西署皇華坊景雲宮

는 거리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대부분 원찰들은 城外四部를 포함하여 도성으로부터 반나절 거리에 분포하게 되었다. 또한 풍수지리적 조건 때문에 대부분은 도성 북쪽 삼각산 자락에 위치하며, 한강 남쪽에는 관악산 일대에 집중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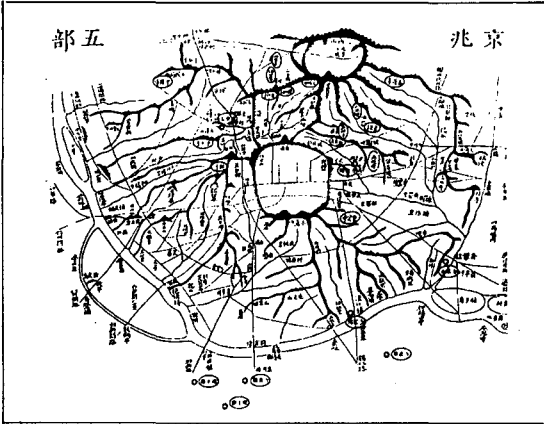


그림1. 19세기 수도권 원당사찰 분포도

19세기 후반 원당사찰들의 가장 유력한 후원자는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였다. 그러나 이들 최고 실력자들이 자발적으로 시주를 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근교의 사찰들은 이들의 후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과 정성을 기울였고, 후원을 따내기 위해서는 완벽한 祈福念佛堂으로 사찰의 성격을 바꾸어야 했다.¹¹⁾

사찰에 직접 왕래하여 시주를 하고 불공을 드렸던 이들은 대부분이 고위층의 부인네들이었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와야 했을 뿐 아니라, 기존 사찰과는 다른 새로운 가람형식을 필요로 했다. 고위층 부인들은 일반신도들의 눈에 띄는 것을 회피했으며, 사찰측으로서도 귀빈을 맞을 수 있는 특별한 시설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들 사찰은 대부분 주지들의 사유재산이 되어 別房制

淳嬪謀氏.

華溪寺：雲峴大院君，大王大妃趙氏，王大妃洪氏，慶嬪金氏 外 尙宮15人.

興天寺：大院位李氏，府大夫人閔氏.

興國寺：領議政金公，貞敬夫人尹氏，坤命梁氏，訓將金公，尙宮南氏，尙宮金氏，尙宮金氏，尙宮李氏.

普光寺：淑嬪嚴氏，尙宮千氏，尙宮洪氏.

가 등장하게 된다.¹²⁾ 19세기 불교계의 특별한 상황과 후원자들의 신본적 요구가 수도권 원당사찰들의 독특한 건축적 형식을 만들어 내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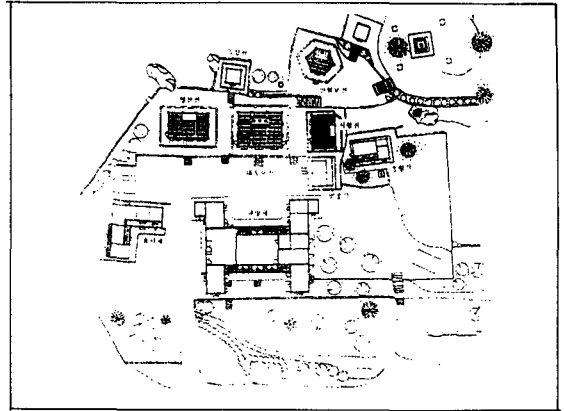


그림2. 남양주 흥국사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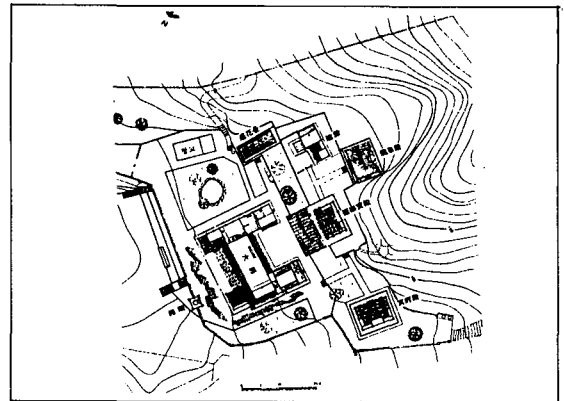


그림3. 성북구 흥천사 배치도

11) <<三角山華溪寺重建記>>, 1866. “...沙門龍船梵雲兩禪 泣訴于雲峴大院君 如此重建 佛殿僧房 ... 豈非國朝聖德之願護 亦乃佛聖冥加之神力也... 念佛精進不已則 極樂郎此地云...” 승려 용선과 범운이 흥선대원군에게 눈물로 애원하여 겨우 건물들을 증진할 수 있었다는 사실과 국가와 왕실의 안녕과 명복을 위해 염불정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2) 高橋亨, 李朝佛敎, 한국불교의 현실과 전망 (불교사회문화연구원 편), 81쪽에서 재인용. 別房은 주지 개인을 위해 만들어진 별도의 승방을 의미하며, 본 논문에서 언급할 대방체의 별칭으로 보인다. 별방제는 곧 사찰 구역 안에 별가를 세워 처자와 동거하는 別家制로 발전해 버려, 일제시대 대부분의 승려들이 대처를 하게 되는 제도적 장치를 제공했다.

3-2. 建築計劃의 特性

사찰들은 예불을 위한 불전부분과 승려들의 거주를 위한 승방부분으로 구성된다. 수도권 원당사찰 가운데 남양주군의 水落山 興國寺 <그림-2>는 19세기의 건축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장 큰 규모의 예다. 흥국사의 불전부분은 대웅보전 영산전 시왕전 만월보전 단하각 독성전 범종각으로 구성되며, 승방부분은 대방과 응향각 요사채로 구성된다. 흥국사는 1568년 원래부터 德陵의¹³⁾ 願刹로 지정되었다. 가람의 중심영역을 형성하고 있는 대웅보전-영산전-대방-시왕전은 1821년 純祖의 內帑金으로 중건되었고, 언덕 위의 滿月寶閣은 1856년 영의정 김조순의 시주로 지어져 哲宗의 願堂이 되었다.¹⁴⁾ 새롭게 원당건물을 삽입하면서, 왕실원당으로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매우 독특한 육각형건물을 만들고 육모지붕을 씌웠다. 기존 사찰 속에 새로운 원당건물을 배열할 때는 기존의 질서를 깨트리지 않으면서도, 원당건물의 상징성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시각적 중요지에 독특한 형식으로 배열하는 원칙적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¹⁵⁾

더욱 일반적인 예로는 <그림-3> 三角山 興天寺를 들 수 있다. 흥천사가 현재의 위치로 옮겨온 때는 1794년이었으나, 본격적인 영조활동이 벌어진 것은 1846년 계장이 먼저 칠성각을 지은 다음부터 이다.¹⁶⁾ 곧이어 대방(1849)을 짓고¹⁷⁾, 그 후에 극락보전(1853)과 명부전(1855)을 건립했으며, 흥선대원군의 지원이 있었던 1865년 대대적인 확장 중수사업을 벌이게 된다. 구성건물들의 건립순서는 칠성각 -> 대방 -> 극락보전 -> 명부전의 순서로 건립되었다. 신중각인 칠성각과 대방이 먼저 지어졌다는 사실은 처음에는 주불전이 없는 암자의 형태로 출발하여 차츰 본격적인 사찰의 요건을 갖추었던 과정을 의미한다.

三角山 華溪寺 <그림-4> 역시 건물들의 건립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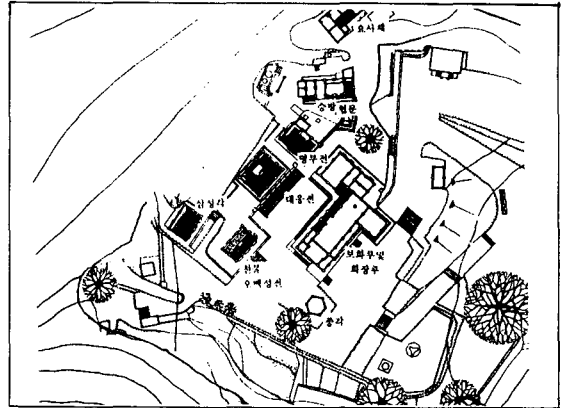


그림4.도봉구 화계사 배치도

서를 추적해 보면, 대방(1866) -> 대웅전(1870) -> 관음전(1875) -> 명부전(1877)의 순서다. 건물들의 규모 순서로 본다고 해도 대방(30칸, 69평) -> 대웅전(9칸, 18평) -> 명부전(6칸, 15평)의 순서다. 다시 말하면, 승방부부이라 할 수 있는 대방건물이 주불전보다 먼저 지어졌으며 규모도 월등히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방이 가람전체에서 주불전보다 오히려 중요한 역할을 했던 양상은 <표-1>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사된 10개 사찰의 주불전과 대방들은 최근 중건된 것들이 많아, 두 건물 간의 건립순서를 따지기는 어렵다. 그러나 규모면에서 비교한다면, 대방의 면적은 주

14) 만월보전 뒤벽에 걸려있는 <爲祝懸板文>에는 철종을 비롯한 왕실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하고 있다. “王上殿下辛卯生李氏 玉體安寧龍樓萬歲 / 王妃殿下丁酉生金氏 玉體恒安聖壽齊年 / 大王大妃殿下己酉生金氏 玉體太平聖壽萬歲 / 王大妃殿下戊辰生趙氏 玉體彊建聖壽萬歲 / 大妃殿下申酉生洪氏 玉體安康聖壽千秋 / 慶嬪邸下壬辰生金氏 貴體太平壽星長曜 ”

15) 구체적인 다른 사례로는 의성 고운사의 원당인 延壽殿의 예를 들 수 있다. (김봉렬, 孤雲寺 建築의 集合類型 研究, 건축역사연구 6집, 한국건축역사학회, 1994.12, 22쪽 참조)

16) <<京畿右道 楊州牧地 三角山興天寺 寮舍重創記文>>

17) 위의 같은 기문에 의하면 “念佛觀禪之室로 寂照庵을 창건하였다” 하니 이는 곧 대방을 의미한다.

13) 德陵은 宣祖의 生父인 德興大院君의 무덤.

불전의 2.3배에서 5.6배에 까지 이른다. 기존 사찰 들과는 전혀 반대되는 현상이다.

주불전은 대웅전 또는 극락전의 명칭이 붙여졌다. 그러나 대웅전이라 불렀더라도, 화계사나 봉원사와 같이 일제기까지 실제로 봉안되었던 불상 들은 아미타불이었다. 따라서 대웅전이란 가람의 주불전을 통칭하는 명칭일 뿐, 그 이전과 같이 석가모니의 영산회상을 상징하는 명칭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원당사찰이라는 원래의 목적상 아미타불을 주존으로 하는 극락정토신앙을 주신앙으로 수용한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었다. 극락정토신앙은 자연스레 念佛 중심의 사찰운영으로 귀결된다.¹⁸⁾ 따라서 사찰 내에 설치해야할 念佛堂이 사찰의 가장 중요한 건물이 될 수 밖에 없었고, 이는 곧 대방채가 발달하게 된 이유가 되었다.

또한 극락정토신앙은 건축적으로는 영역성을 확보하려는 노력, 더 구체적으로는 마당을 중심으로 건물군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나타난다.¹⁹⁾ 4동의 건물이 중정을 감싸는 이전의 이른바 四棟中庭型의 형식은 아니지만, 수도권 원당사찰에서는 흔히 주불전 앞의 대방채를 工자형으로 만들어 마당을 중심으로 한 주불전과 대방간의 영역성을 확보하고 있다.

3-3. 配置計劃의 特性

수도권 원당사찰의 배치형식은 <그림-5와 6>과 같이 중심영역의 앞에는 대방채가, 뒤에는 주불전이 자리잡는다. 기존 형식인 四棟中庭型의 사찰이 주불전 앞에 루강당을 두고, 주불전과 루강당 사이에 두채의 승방을 배열해 중정을 감싸는 것과는 달리, 주불전 앞마당의 위요감은 크지 않다.

단지 대방 뒤면에 돌출된 날개채를 달아 약간의 위요감을 형성한다. 기존 유형의 루강당은 주불전 쪽으로 개방되어 중정의 공간감을 확장하지만, 원당사찰의 대방은 완전한 내부공간이며, 마당을 오히려 한정한다. 또한 전면 루강당 밑을 통과하는 소위 樓下進入 방법은 적용되지 않고, 대방의 모퉁이를 돌아 주불전으로 이르는 隅角進入의 방법이 적용된다.

수락산 興國寺나 고령산 普光寺 등 기존 능침 사찰들을 제외하고 새롭게 자리잡은 원당사찰들은 대부분 경사지의 협소한 터에 자리를 잡았다. 따라서 대지의 중간중간에 높은 석축을 쌓아 두개의 단을 만들어 아래단에는 대방채를, 위단에는 주불전을 위치시킨다. 기존 四棟中庭型에서 중정이 중심이 되어 4방향성을 가지는 것과 대조적으로, 원당사찰의 마당은 상하 2방향성만을 갖게된다. 전체 가람은 大房群 (아래단)과 佛殿群 (위단)으로 구성된다. 비록 가람의 기능적 중심건물이 대방이기는 하지만, 종교적 상징성을 갖는 불전들을 위단에 올려서 경사지를 이용한 기능군의 수직적 위계를 뚜렷이 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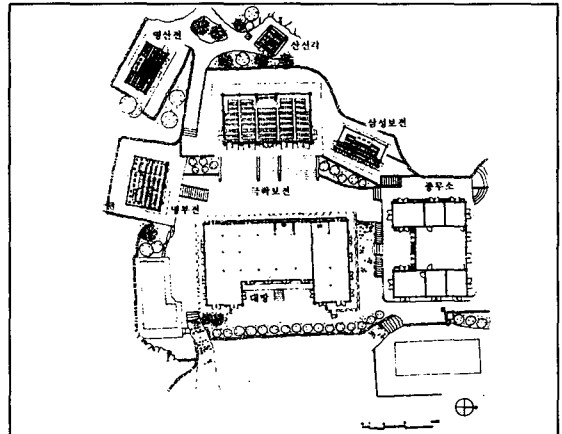


그림5. 성북구 경국사 배치도

18) 김영태, 近代佛敎의 宗統宗脈, (근대한국불교사론, 민족사, 1988), 188쪽. 조선후기 불교계는 參禪 看經 念佛의 이른바 三門修業을 위주로 유지되어 왔다. 따라서 큰 사찰들에는 禪房과 講堂 念佛堂이 설치 운영되었다. 그러나 19세기 말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흥한 사찰들에는 高聲念佛을 일파로 삼는 彌陀淨土信仰의 풍조가 널리 유행하게 되었다. (김영태, 韓國佛敎史 概說, 경서원, 1986, 220쪽)

19) 김봉렬, 앞 논문, 20-1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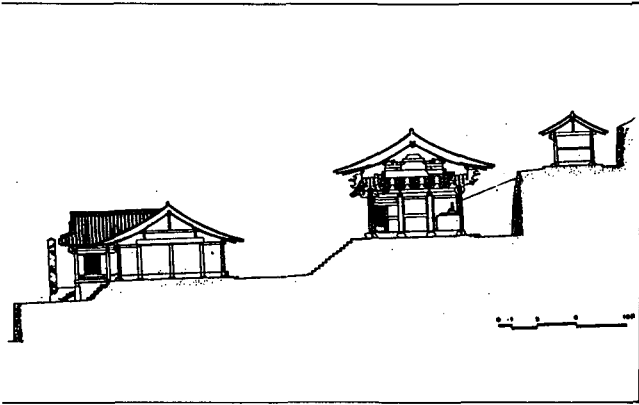


그림6. 성북구 경국사 주단면도

앞서 말한대로 사찰들의 주신앙이 아미타불을 주존으로 하는 극락왕생신앙이므로, 부불전으로는 명부전을 필요로 하게된다. 내세의 극락왕생을 위해서는 冥府(지옥)에 떨어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아래단에는 대방채의 규모가 커서 더 이상의 건물배열이 곤란하지만, 위단에는 주불전 외에도 명부전이나 관음전 등 부불전들을 첨가할 수 있다. 따라서 가람이 확장되더라도 주불전-대방으로 이루어지는 중심영역은 변화없이 위단의 불전군만이 횡적으로 확장될 뿐이다.

4. 佛殿의 形式과 構成要素

4-1. 佛殿의 形式

주불전은 극락전이나 대웅전 들이며, 부불전은 주로 명부전이다. 주불전의 칸살이는 정면3칸, 측면3칸의 9칸 구조로 45-60m² 정도의 규모이며, 부불전들은 그보다도 작은 3×2칸, 6칸 구조이다. 원당사찰은 특정 개인신도를 위한 염불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많은 대중들의 법회를 위한 공간이 필요치 않다. 수도권 원당사찰에 대규모 루강당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또한 주불전은 가람 전체의 기능적 건축적 중심이 아니라, 소규모 예배소로서의 상징적 기능만을 갖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로 지어졌다.

주불전 내부에는 후불벽을 세우고 불단을 가운데에 설치하는 전통적인 방법이 잔존하지만, 홍국

사 대웅전과 같이 후불벽이 외벽 기둥열보다 뒤쪽으로 후퇴하는 소위 중간형의 공간을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봉원사 대웅전과 같이 후불벽 없이 아예 뒤벽에 불단이 설치되는 통칸형의 구성도 나타난다. 모두 제한된 규모 속에서도 넓은 내부공간을 확보하려는 근대적 욕구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수도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19세기에 건립된 전국적인 불전건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공간의 의례적 형식보다는 경제적인 활용도에 더 높은 가치를 두었기 때문이다.²⁰⁾

4-2. 構成要素와 技法

불전들의 건축적 형식은 이전의 예들이나 동시대 지방사찰들의 예와 큰 차이가 없지만, 건물의 구성요소들은 재료와 기법면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단적으로 말한다면, 모든 요소들은 고급스런 기법으로 가공되었고, 대단히 많은 전문 기술자들이 동원되었다.

대부분 급한 경사지의 위단에 불전을 배열했기 때문에 일단 석축을 쌓고 그 위에 기단을 만든다. 불전들의 규모가 작은 까닭에 석축과 기단은 잘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붙어있게 된다. 석축은 7벌대 정도의 잘 다듬은 장대석들로 쌓는다. 기단 역시 장대석 외벌대로 구성된다.²¹⁾ 계단 또한 장대석 가공석을 이용하여 불전의 양 옆쪽에 설치했다.²²⁾

불전 앞면 초석은 정교한 쇠시리가 있는 원형 초석이나 사각뿔형의 초석이 사용되었다. 대개 초석의 높이가 높아서 마루면이 높아지게 되므로, 초석 사이에 장대석 댓돌을 놓아 마루 밑면을 채우는 동시에 출입을 용이하게 한다. 장대석을 사

20) 김봉렬, 朝鮮時代 寺刹建築의 殿閣構成과 配置形式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111쪽.

21) 예외가 있다면, 도성에서 꽤 떨어진 파주의 보광사 대웅전이 자연석 기단을 가진 정도다.

22) 홍천사 화계사 봉원사 등의 주불전 앞에는 전면 모두에 계단을 설치하고 있으나, 모두 일제시기 이후에 변형한 것들이다.

용한 석축들, 초석과 댓돌의 기법은 서울의 세도 가들이나 궁궐에서만 볼 수 있는 기법들이다.²³⁾

벽체는 대부분 木造板壁으로 구성되어 수도권 원당들의 뚜렷한 건축적 특성을 이룬다. 아래부분에는 전돌을 쌓은 방화벽을 구성하기도 했다. 특히 도성에서 가까울 수록 이러한 경향은 뚜렷하다. 판벽의 구조는 원래 우물마루와 같이 상하 인방들에 흙을 파고 그 사이에 널판을 밀어넣어 맞추는 것인데, 원당사찰들의 경우에는 상하 인방에 바로 못을 쳐서 조립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통적 기법을 두고 구한말에 수입된 일본건축기술의 영향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²⁴⁾ 화계사 대웅전의 경우는 기둥 위 포작 사이의 包壁 까지 판벽으로 구성하여, 원당사찰 건물의 중요한 요소적 특성을 이룬다.

포작의 구조는 주로 다포계 공포들을 사용했으며 살미침차 등이 발달하는 등 매우 장식적이다. 수국사 주불전의 경우는 익공계 공포를 채택했으며, 기둥 사이 창방 위에는 구름모양의 장화반들을 배열하였다. 장화반은 경복궁 침전건물들에서 자주 나타나는 궁궐이나 관청건축의 특징적인 요소다.

가장 특징적인 요소들은 바로 지붕의 장식기법들이다. 지붕의 형태는 맞배지붕인 수국사 불전을 제외하고는 모두 팔작지붕들이며, 예외없이 장식적인 부재들이 부가되었다. 용마루 양 끝에는 예외없이 龍頭나 鸞頭를 올렸고, 화계사의 경우는 청기와를 올렸다. 흥국사의 불전들은 추녀마루에 5구의 雜像들을 올려서 영락없는 궁궐건물들과 같이 보인다. 거의 모든 불전의 지붕에는 막새기와를 사용하고 있는데 암막새에는 龍무늬를, 수막새에는 鳳凰 무늬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장식 기법들은 궁궐건축에서만 사용되던 것들로서, 사찰에는 고려조어나 사용이 가능했었다.

4-3. 工事組織과 匠人

23) 修道山 奉恩寺 實測調査報告書, 서울특별시, 1990, 59-61쪽.

불전의 구성요소가 서울의 최상류주택이나 궁궐건축의 요소와 유사하다는 사실은, 원당 조영에 동원된 기술자들이 궁궐이나 관청 조영에 관여했던 당시 최고의 장인들이었음을 의미한다. 이 추론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守國寺의 기록에 실려있다. 1900년 고종황제는 수국사를 황실의 원당으로 지정하면서, 26만8천兩을 하사하였고, 동시에 궁중의 御用木手 趙千萬을 파견하여 공사를 담당토록 하였다.²⁵⁾

1866년 대원군의 시주로 화계사가 중창될 때, 石工 30명과 木工 100명이 동원되었다는 기록이 있고,²⁶⁾ 도편수는 승려지만 副片手 김광월, 石工片手 배삼돌, 泥匠片手 한기보, 結墨 김수일, 修粧 최인석, 火臺 심돌이 등 실제 장인들은 모두 민간인들로 기록되어 있다. 흥천사의 경우는 大木과 都片手들 까지 민간 장인으로 기록되어 있다.²⁷⁾ 조선후기 사찰 조영에 동원된 장인들이 거의 대부분 승려들의 자급적 조직이었다는 점과는²⁸⁾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공사조직이다. 다시 말하면, 수도권 원당사찰의 조영에는 형식적인 승려 도편수의 감독 아래 고급 민간장인들이 참여하였고, 더 나아가 감독관 자체도 민간장인으로 충당했다. 승려 건축주와 민간장인으로 영조조직이 이원화된으로써, 공사조직의 측면에서도 수도권 원당사찰은 그 이전의 사찰건축과 차이를 보인다.

5. 大房채의 計劃과 構成要素

5-1. 대방채의 성격

24) 奉元寺 實測調査報告書, 서울특별시, 1990, 92쪽.

25) <<奉先寺本末寺誌>>, 守國寺誌編, 沿革條, 232-234쪽.

26) <京畿道 漢北 三角山 華溪寺 大雄寶殿 重建記文>

27) <重建新興方丈記>, 1882.

28) 김동욱, 韓國建築工匠史, 기문당, 1993, 191쪽.

서치상, 朝鮮王朝 願堂寺刹의 造營에 관한 연구, 부산대대학원 (박사학위취구논문), 1990, 25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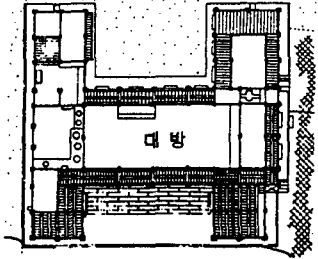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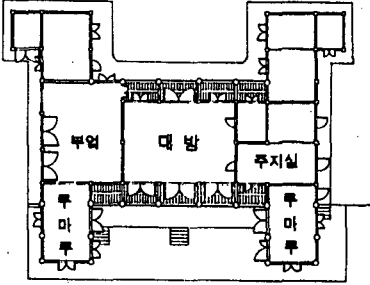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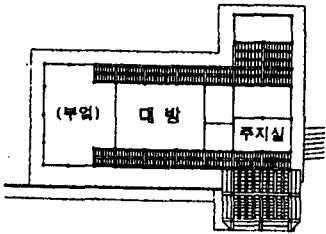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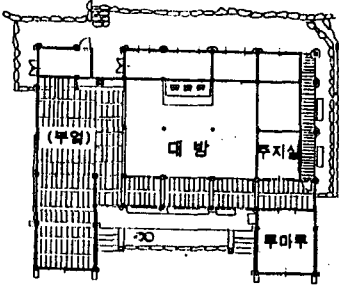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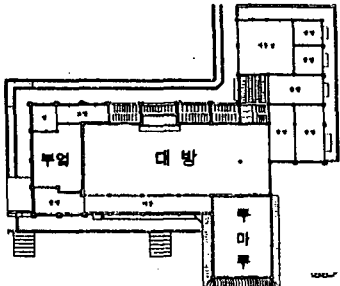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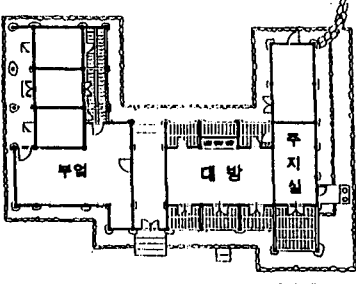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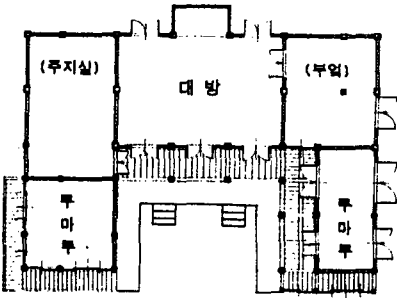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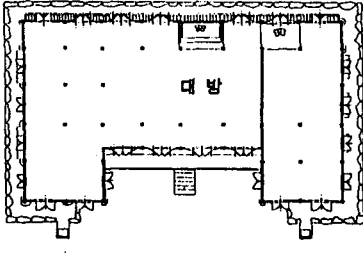
<p>흥천사</p>		<p>흥국사</p>	
<p>보광사</p>		<p>천축사</p>	
<p>화계사</p>		<p>화암사</p>	
<p>수국사</p>		<p>경국사</p>	

표2. 수도권 대방들의 평면 비교

수도권 원당사찰의 가장 큰 건축적 특성이라면 대방채가 가람의 기능적 물리적 중심으로 역할하며, 주불전의 전면에 배치된다는 점이다. <<傳燈寺本末寺誌>> (안진호, 1932)에 등장하는 경기일원의 28개 사찰 가운데 15개 사찰에 ‘大房’이 존재한다.²⁹⁾ 일반적인 사찰에서 大房은 因法堂 (혹은 人法堂)이라고도 불리운다. 원래 ‘대방’이란 요사채의 중심에 있는 커다란 “大衆房”을 부르는 용어로, 승려들이 모여 看經 坐禪 說法 食事 등 다용도로 사용하던 곳이다. 인법당은 ‘사람이 사는 법당’ 즉 큰 승방 가운데에 불단과 불상을 모셔서 ‘승방 겸 불전’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지칭한다. 승방과 불전 뿐 아니라 부엌 객사 등 사찰 생활의 많은 시설을 한 몸체에 수용한 복합적인 건물이다. 인법당은 불전을 별도로 세우기 어려운 작은 규모의 암자등에 적합한 건물유형이다. <<傳燈寺本末寺誌>>에 등장하는 15개 사찰들의 건물구성을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1. 대방 단독형 : 내원암 운흥사 도선암
2. 대방+신중각 형 : 청련사 백련사 해운암 옥천사
3. 대방+주불전 형 : 보문사 정수사 용궁사 봉룡사 문수사 원통사 관음사 연경사

이상 사찰들의 구성에서 대방채는 사찰 전체에서 가장 규모가 크며, 주불전보다 먼저 지어진다. 이는 공통적이다. 대방단독형의 사찰이란 작은 암자규모로 대방 안에 예불공간이 존재하며, 별도의 요사채가 부가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대방은 승려들이 거주하는 요사채의 기능보다는 불전의 기능이 더 강하다는 점이다. 일상생활을 위한 요사채는 대방과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찰이 확장되는 방법은 대방단독형에서 칠성각 등 신중각이 부가되고, 여기에 주불전이 배치되는 순서를 따른다. ‘대방’이나 ‘인법당’의 명칭은 모두 복합용도의 시설을 뜻하고 있지만, 수도권 사찰의 대방이란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보

다는 더욱 특정한 건물의 유형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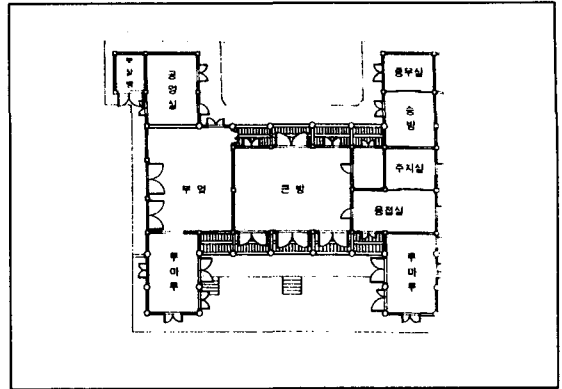


그림7. 남양주 흥국사 대방채 평면도

5-2. 建築計劃

대방채의 기능은 중심공간인 ‘큰방 (大房)’, 부엌과 부대공간, 주지실과 승방, 그리고 접객 및 휴식을 위한 루마루의 4부분으로 구성된다. ‘큰방’은 인법당과 같이 6칸 이상의 커다란 방에 불단을 설치하고 불상을 모신다. 부엌과 부대공간은 취사와 식사배선을 위한 시설들로 큰방 옆에 부설된다. 주지실은 큰방을 중심으로 부엌과는 반대쪽에 위치한다. 주지실은 한쪽으로 큰방에 붙어 있어 쉽게 여러 행사를 주관할 수 있으며, 다른 쪽으로는 돌출된 루마루와 붙어있다. 대방의 루마루는 대략 주지승의 휴식과 중요한 신도를 접객하는 공간으로 쓰인다. 주지실의 나머지 다른 한쪽은 사찰의 사무실이나 보조승려의 승방과 붙어 있어서, 사찰 행위의 많은 부분을 관리하기 위한 위치에 주지실이 놓인다. 대방채에는 다른 기능의 많은 방들이 복합되었기 때문에 <표-1>과 같이 21칸-48칸, 133.5m²-293.6m²의 큰 규모를 갖는다.

대방채는 큰방을 중심으로 양쪽에 부엌과 주지실이 일렬로 배열하여 기본골격을 이루며, 여기에 루마루와 부대공간이 부가되어 <표-2>와 같이 ㄷ자형, 7자형, 1자형, 工자형 등 다양한 형태로 변형된다. 모든 대방채에는 루마루가 시설되는데, ㄷ자형이나 工자형 대방에는 양쪽에 하나씩 한쌍의 루마루가 부설된다. 이러한 경우 주지실 쪽의 루마루는 주지의 접객용이지만, 반대쪽의 루마루

29) 興天寺 實測調査報告書, 서울특별시, 1988, 84쪽에서 재인용.

는 부엌에 부설되어 식사용 또는 승려들의 휴식 공간으로 쓰인다. 루마루의 규모는 보통 4칸으로 소규모 대중집회도 가능할 정도의 크기다. 원래는 벽체가 개방되었지만, 후대에 대부분 벽을 치거나 창을 달아 樓房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 루마루는 사찰 진입로에서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설치되어 기존 사찰의 루장당의 기능과 형식을 일부나마 재현하는 요소로 볼 수도 있다.³⁰⁾ 여러가지 기능이 합리적 경제적으로 통합되었다는 점에서 대방채는 근대적인 건물유형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대방채라는 유형의 건물이 유독 수도권 원당사찰에만 집중적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두가지 이유를 추론할 수 있다. 우선 사찰의 후원자가 주로 고위층의 부녀자들이었고, 일반신도들과 섞여 불전에서 불공을 드리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별도의 예불공간을 필요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³¹⁾ 루마루를 달아 특수층을 위한 특

별한 접객공간을 마련해야 했던 이유도 함께 설명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이들 사찰이 주지승의 개인소유로 극히 소수의 승려들만 기거할 수 있었고, 신도 역시 몇몇 특수층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규모 승단이 생활하는 지방의 기존 사찰들과는 달리 개별적인 공간으로서 대방채를 계획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5-3. 構成要素와 技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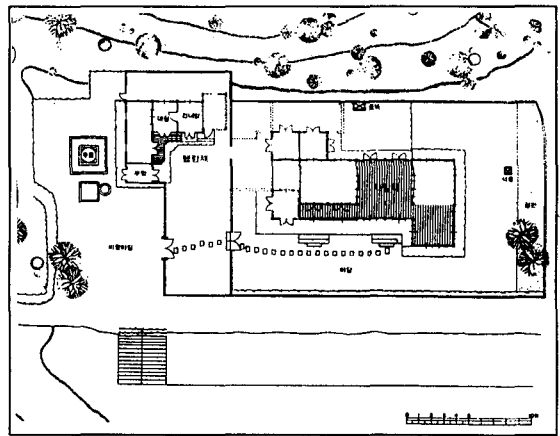
현존 대방채들의 구성요소와 기법은 주불전들과 유사하다. 특히 석축 기단 계단 등 석조요소들은 잘 다듬은 장대석들을 이용하고 있어 주불전들에 사용된 기법을 반복하고 있다. 석축은 4-6벌대의 장대석 석축이며, 그 위에 장대석 3벌대 정도의 기단을 쌓았다. 계단은 보통 큰방 양쪽에 놓이며, 천축사 대방과 같이 쇠시리가 된 소맷돌을 부설한 예가 많다. 주불전의 계단들이 소맷돌을 갖지 않는 경우와는 대조적이다. 대방의 정면이 곧 사찰 전체의 정면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고급의 입면요소들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초석은 전면에는 사각뿔형의 가공초석이지만, 후면은

넓적한 자연석들을 이용했다. 전면 루마루의 초석은 1m가 넘는 장주초로 되어 있어서, 역시 궁궐 행각이나 루각에 쓰이는 기법을 연상시킨다.

벽체는 판벽을 사용한 예와 심벽의 예가 고르게 나타나 판벽 위주의 주불전과는 차이를 보인다. 대방은 생활공간이기 때문에 보온 등의 문제를 고려한 까닭이다. 포작은 주로 이익공계와 주삼포계가 사용되었고, 보광사나 화엄사와 같이 도성에서 멀어질수록 민도리 구조가 주류를 이룬다. 지붕의 형태는 팔작지붕을 주조로 하여 복잡한 평면에 맞추어 다양하게 구성된다. 어느 경우에도 지붕 용마루 끝에는龍頭를 달아서 장식성을 과시한다.

6. 建築型式의 淵源에 대하여

원당사찰들은 대방채라는 독특한 건물형식과 대방+주불전으로 이루어지는 배치형식을 중요한 유형적 성격으로 갖는다. 그러나 원당사찰의 건축유형이 19세기 수도권 지역에서 새롭게 창작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당사찰의 성격 자체가 지극히 보수적이며, 어느 면에서는 시대역행적으로 새로운 혹은 근대적인 건축형식을 창출할 잠재력을 갖고 있지 못했다. 오히려 그 형식적 근원은 서울 경기지방 건축의 지역성과, 기존 암자형식들과의 관계, 그리고 궁궐건축과의 관계성 등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31) 최완수, 명찰순례-2, 대원사, 1994, 191쪽에서도 비슷하게 추론하고 있다.

30) 같은 책, 85쪽.

그림8. 성북동 이재준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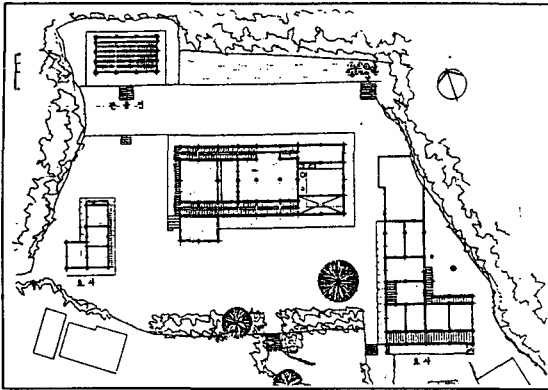


그림9. 대구시 내원암 인법당

수도권 원당형식이 도성 근교에 밀집되어 있는 지리적 조건은 이미 지역적 건축형식 영향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서울 경기지방 살림집은 고평집 (혹은 7자집)의 구조를 원형으로 삼고 있다. 수도권 건축계는 집의 몸채를 꾸는 기법들에 익숙해 있었다는 의미다. 대방채들이 7자 ㄷ자 ㄴ자 ㄱ자형으로 자유로이 건설될 수 있었던 유형적 기술적 여건은 구비되었던 셈이다. 또한 이 지역의 최상류층 주택의 사랑채에는 돌출된 루마루가 자주 사용되었다. 대원군 별장이었던 석파정의 예가 지시하는 바와 같이, 적어도 1850년대 이전에 돌출된 루마루가 서울의 주택에 채용되었다. <그림-8> 성북동 이재준 가옥은 1900년대에 건축된 집으로 사랑채의 평면 구성이 대방채의 기본형과 유사함을 알려준다. 대청은 큰방과, 큰 사랑방은 주지실과 대응한다 할 수 있고, 루마루는 규모만 다르게 나타난다. 동시대의 성북동 이태현 가옥이나 1930년대 경운동 민익두 가옥은³²⁾ 완벽한 ㄱ자형 평면으로 양쪽 돌출부에 루마루를 가지고 있다. 흥국사 흥천사 대방들과 유사한 구성이다.

수도권 일대 주택의 배치형식과 원당사찰을 대응시켜 고찰한다면, 원당의 대방채는 주택의 사랑채에, 주불전은 안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주불전 앞에 루각을 배치하며 전면을 개방하는 전통적 형식의 틀을 깨고 과감히 대방채를 배치

할 수 있었던 근거는, 주택의 구성원리를 사찰에 도입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대방채를 지칭하는 인법당의 형식은 원래 소규모 암자에서 유래했다. 산중의 작은 암자들은 일반신도들의 내왕이 거의 없고 극소수의 승려들과 신도만의 장소였기 때문에, 불전과 승방을 따로 마련할 필요나 여유가 없었다. 하나의 건물 안에 불당과 승방, 객사들을 복합할 수 있는 건축형식이 필요했다. <그림-9> 팔공산 內院庵 因法堂은 1827년에 창건된 건물이다. 루마루-승방-큰방(불당)-부엌이 하나의 건물안에 구성되고, 7자 평면을 갖는다. 이러한 인법당 형식은 경남북의 암자에서 흔히 발견된다. 시대적으로는 수도권 원당들이 유행하기 이전인 적어도 18세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유형들이다. 주지 한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법당의 규모와 쓰임새, 그리고 복합적인 평면 구성과 경제적인 기능성 등이 수도권 원당사찰들의 조건에 잘 부합하는 형식이다. 원당사찰의 주지승들은 지방출신이 대다수였고, 또 사찰들간의 승려 교류가 활발한 것이 불교계의 관행이어서 지방의 인법당 형식이 수도권 원당 대방채의 유형적 연원으로 받아 들여졌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실제로 대부분의 원당사찰들은 소규모 암자에서부터 출발했다. 화계사가 그랬고, 수국사는 작은 암자였던 것이 황실원당으로 지정되면서 6동 50칸의 건물규모로 증축되었다.³³⁾ 암자였던 시절 우선 대방채가 지어졌고, 원당으로 지정되면서 주불전과 부속전각들이 건립되는 것이 원당사찰들의 전형적인 조성과정이었다.

수도권 원당 건물유형의 또다른 연원을 궁궐건축과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세기 원당의 후원자들은 국왕 왕비 상궁 등 궁내의 고위층

32) <<서울문화재대관>>, 서울특별시, 1987, 434쪽.

33) <<奉先寺本末寺誌>>, 23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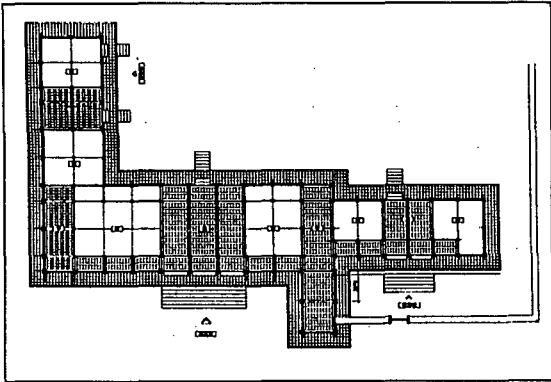


그림10. 경복궁 자경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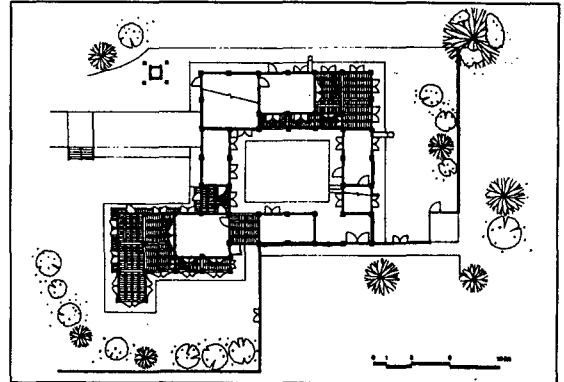


그림11. 남양주시 궁집 (현 권옥련 가옥)

들과 흥선대원군 안동김씨 가문 등 궁밖의 인물들이라 하더라도 왕의 친족 또는 외척이 되는 궁궐 관련자들이다. 이들의 정치적 재정적 후원을 받고 있는 사찰측에서는 이들 궁인들에게 익숙한 건축환경을 제공해야 했을 것이다. 또 앞서 지적한대로 이들이 주로 여성층이었던 까닭에 내의를 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구조가 필요했다. 궁궐의 여성들에게 친숙한 고급의 건물유형을 경복궁의 慈慶殿 <그림-10>에서 발견할 수 있다. 자경전은 1888년 대왕대비 조씨의 침전으로 증건되었다. 여러개의 방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내부는 툇마루와 대청으로 통합되며, 루마루방이 돌출되어 있다. 경복궁의 수많은 건물 가운데 유독 자경전에만 설치된 시설이다.

돌출 루마루가 왕실 여성들에게 애호되었던 다른 물증으로 남양주시의 궁집을 들 수 있다. <그림-11> □자형 안채에 사랑채가 날개채로 부가되었고 그 사랑채의 서쪽은 루마루방으로 돌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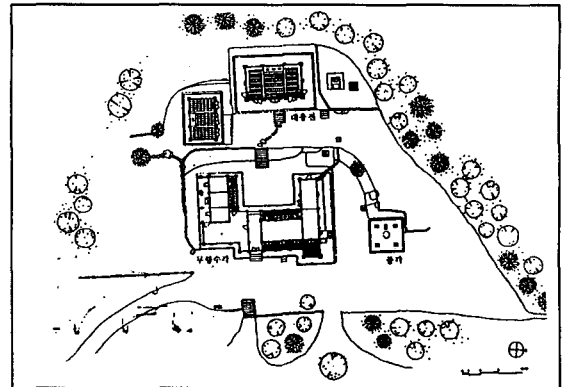


그림12. 예산 화엄사

이 집은 翁主가 시집을 와서 지어진 것으로 전한다.³⁴⁾ 이미 17세기부터 루마루가 부가된 형식의 건물이 존재했고, 그 대부분이 왕실과 관계가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예산 華嚴寺 <그림-12>의 배치형식과 대방의 구조는 일반적인 충청지역 사찰형식과는 전혀 다르다. 원래는 지금의 주불전 자리에 인법당이 있었으며, 그 앞에 대방채를 배치했고 대방채에는 루마루가 돌출되어 있다. 대방채의 구성만 본다면, 수도권 원찰의 대방채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다. 인근에는 和順翁主의 시집이었던 秋史古宅이 있고, 화엄사는 추사고택에 소속된 개인사찰이었다. 시집은 화순옹주를 위한 원당이었는데는 물론이다. 돌출 루마루를 가진 궁집과 화엄사의 예는 지역적 형식과는 전혀 다르며, 모두 왕실의 고위여성층과 관련이 있다. 그녀들이

34) 傳統家屋調査報告書, 문화재관리국, 1983.12, 39쪽.

특히 선호했던 건축형식임을 추정할 근거를 제공한다.

궁궐이나 관청건물에 쓰이는 구성요소와 장식 요소들이 수도권 원당사찰에 자주 쓰였음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건물의 구성요소 뿐 아니라 鑪水瓮과 같이 궁의 전각월대에서나 볼 수 있는 장식 요소들이 사용되어, 왕실과 연관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했을 요소들도 도입되었다.³⁵⁾ 특히 장대석을 이용한 석축과 기단, 사각뿔형 초석과 장대석 덧들의 조합은 궁궐의 모든 건물이나 상류층 가옥들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계급적 지역적 요소로 원당 건물 구성의 기본요소가 되었다.

7. 結論

19세기 서울 근교에는 왕실 세도가의 고위층 부녀자들과 결합한 소규모의 원당사찰들이 건립되었다. 이들 사찰의 특수한 운영방법은 이전의 가람형식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 낼 수 밖에 없었다. 이전의 전통적인 형식이 불전 앞에 루각을 두고 좌우에 승방을 두는 '4동중정형' 형식이었다면, 원당사찰들은 대방채 뒤에 주불전을 두는 '2동배열형'의 형식을 가졌다. 특히 대방채는 기능면에서나 규모면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건물로서, 불당-승방-부엌-휴식-접객의 기능이 복합된, 건물 자체가 하나의 작은 사찰이었다.

대방채 건축의 유형적 연원은 그 이전부터 지방 각지에 존재하던 소규모 암자의 인법당이였다. 대부분 원당들이 소규모 암자의 형태에서 출발하였고, 주지승을 비롯한 소수의 승려를 중심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작은 규모에 맞는 건축형식으로 인법당형식을 채택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고패집 구조에 익숙한 수도권 건축의 지역성으로 보아도 무리없이 수용될 수 있는 형식이었

다. 돌출 루마루가 있는 사랑채 뒤에 안채가 놓이는 수도권 상류주택들의 배치형식은 원당사찰의 '2동배열형' 가람형식과 상통하는 것이다.

기능적 지역적 필요에 의해 채택된 가람의 형식은 고위층 부녀자들이 매우 선호하고 익숙했던 건축형식이었고, 일반신도들과는 内外의 필요가 있었던 후원자들에게 적합한 공간을 구성할 수 있었다. 또한 왕실에서 직간접적으로 원당 건설에 관여하여 직접 궁중 목수를 파견하기까지 하여, 궁궐건축에 나타나는 구성적 장식적 기법들이 원당건축에 깊이 반영되었다.

근대건축의 시대가 열리기 직전에, 수도권 원당사찰들은 전통 불교건축의 마지막 유형을 창조하였다. 그 형식들은 근대성 보다는 중세회기적 경향이 짙었고, 전국적인 영향력도 없었다. 그러나 조선조 불교건축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건축 유형이었고, 축약된 기능과 경제적 합리성의 측면에서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엿볼 수도 있다. 또한 원당사찰의 연구를 통하여 건축적 격변기의 여러 가지 배경적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5) 華溪寺 實測調査報告書, 174쪽. 鑪水瓮이란 궁궐 정전 월대 위에 설치한 놋쇠물통으로 주술적 의미와 함께 방화용으로 쓰였다. 이외에도 화계사 천불오백성전의 익공양식이 궁궐건축적 요소이며 왕실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주장되었다.

참 고 문 헌

傳燈寺本末寺誌

奉先寺本末寺誌

修道山 奉恩寺 實測調查報告書, 서울특별시, 1990.

奉元寺 實測調查報告書, 서울특별시, 1990.

華溪寺 實測調查報告書, 서울특별시, 1988.

興天寺 實測調查報告書, 서울특별시, 1988.

京畿道 指定文化財 實測調查報告書, 경기도, 1989.

서울시 文化財大觀, 서울특별시, 1987.

불교사회연구원, 韓國佛教의 現實과 展望, 지양사, 1986.

불교사학회, 近代韓國佛教史論, 민족사, 1988.

불교사회문화연구소, 現代韓國佛教論, 도서출판 여래, 1983.

김동욱, 韓國建築工匠史, 기문당, 1993.

김영태, 韓國佛教史 概說, 경서원, 1986.

김봉렬, 孤雲寺 建築의 集合類型 研究, 건축역사연구 6집, 1994. 12.

김봉렬, 朝鮮時代 寺刹建築의 殿閣構成과 配置形式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9.

서치상, 朝鮮王朝 願堂寺刹의 造營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1990.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Planning and Compositional Elements of the "Won-dang", Buddhist Temples at Capital Areas in 19th Century

Kim, Bong-ryol

ABSTRACT

Near the Capital Seoul in 19th century, a special architectural form was created by the Buddhist monks who were related with Royal families. Their temples, so called "won-dang", were constructed as supplicating places for their patrons' happiness and heavenly bliss. Among buildings of a Won-dang temple, "Great Hall", which was accepted as a new building type, was the most important, the earliest constructed, and the biggest one. This building type contained the complex functions of small chapels, living rooms of monks, kitchen and dining, and piloted pavillions. This Great Hall was located at the front of Won-dang temples, the main worship halls were at the behind. The type of Won-dang was needed for the high female who were its powerful patrons, and was originated from the small Buddhist temples in rural areas. And the type was able to be domiciled itself at the Capital areas because of the existing architectural fondness of the regional architects and the patrons in high class.